

KOICA 창립 제35주년 기념사

<서른다섯, 자랑스러운 여정>

코이카 가족 여러분,

뜻깊은 창립 35주년을 여러분과 함께 맞이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국제 정세의 불안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본부와 해외 모든 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KOICA는 결코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현장에서 흔들림 없는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묵묵히 헌신해 온 여러분의 노력이
지금의 KOICA를 만들어 왔습니다.

코이카가 첫걸음을 내디뎠던 1990년대 초,
오늘의 대한민국을 예견한 이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OECD DAC 가입을 통해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하였고,
그 중심에는 KOICA가 있었습니다.

지난 35년은 대한민국의 도약과 함께
KOICA가 개발협력의 역사를 만들어 온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대전환의 시대, KOICA의 책무>

직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공공기관 혁신과 구조 개편이라는
국내적 변화의 흐름 속에 서 있는 동시에,

국제적으로는 지정학적 갈등, 공급망 재편, 기후 위기,
그리고 디지털 전환이 맞물린
대전환의 시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개발협력의 환경과 방식,
그리고 그 역할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 개발협력은 단순한 원조를 넘어
경제안보, 외교, 그리고 글로벌 공동 번영과 직결된
전략적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대응이 아니라,
KOICA만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과 가치를
보다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 KOICA이기에 가능한 일을 하고 있는가
- 현장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가
-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선도하고 있는가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전문성, 현장성, 그리고 전략성과 국민 체감 성과—
이 네 가지가 지금 KOICA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핵심 책무입니다.

<기회를 성과로>

창립 35주년을 맞아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분명합니다.

이제 KOICA는 분절된 개발협력을 아우르는
통합 플랫폼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지난해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KOICA의 역할과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였고,

무상원조 분절화 해소는 국정과제로 반영되었으며
KOICA 중심의 플랫폼 역할도 점차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회는 저절로 성과가 되지 않습니다.

본부와 해외사무소, 부서 간의 경계를 넘어
사업과 사람, 네트워크를 연결해야 합니다.

연결의 수준이 곧 성과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이것이 지난 35년에 대한 책임이며,
앞으로의 35년을 준비하는 길입니다.

<연결과 혁신, 그리고 사람 중심의 가치>

직원 여러분,

세계는 복합위기의 시대로 접어들었으며
개발협력은 연대와 평화를 위한 핵심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KOICA는 정부, 공공, 민간, 시민사회, 국제기구를 잇는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확대해야 합니다.

동시에 AI 등 기술혁신을 적극 수용하여
더 큰 성과를 창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현장을 이해하는 마음과 진정성이야말로
KOICA를 움직이는 가장 본질적인 힘이기 때문입니다.

<토대를 넘어, 표준을 세우는 미래로>

이제 KOICA는 단순한 경험 공유를 넘어,
협력국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35년이 토대를 구축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35년은 대한민국 ODA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성과와 가치, 혁신과 사람 중심—
이 모든 것을 함께 만들어가는 KOICA,
그 중심에는 언제나 여러분이 있습니다.

지난 35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KOICA의 시대를 함께 열어갑시다.

감사합니다.

이사장 장 원 삼